

2009. 웨신총회 하계수련회(목포신안비치관광호텔) 단합된 모습



(본보 2면에 계속)

전국시도 경목실장회 대표회장 · 경기경찰청 경목실장회 회장-박봉상 목사

기독교인의 진정한 사랑은 “섬김과 사랑”
 15만 경찰복음화 · 선교에 헌신



이로써 박봉상牧사는 전국시도 경목실장회 대표회장과 경기경찰청 경목실장 등을 맡았다. 대표회장 박봉상牧사는 5월31일(주일) 오후 4시 경기도 이천시 창천동 시온성교회 예부살렘성전에서 전국 경목실장회 대표회장과 경기청 경목실장 등 동시에 취임감사에 배를 드렸다.

이날 (경기청교경위원회)최원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 국가와 대통령을 위하여 (해경 본청경목)김정봉 목사, 전국15만 경찰을 위하여 (경기청교경위원)오원호 목사 등이 기도하고, (경기청 신우회)폴리스 찬송가 이어 찬양단의 특별찬양과 (이전 경찰서경목위원)장재홍 목사가 성경 여호수아 6:1-7절을 봉독하

고 시온성교회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있었다. 이어 “여리고를 정복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경기청경목위원)권대진 목사가 선포했다. 권 목사는 취임하는 박봉상 목사를 향해 “여호수아의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믿는다”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진정한 사랑은 “섬김과 사랑”이라면서 15만 경찰복음화를 위하여 선교에 헌신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지방경찰청장 조현오 치안감장, 조병돈 이천시장, (국가인권위원회)김양원 목사, (중경 전국교경중앙협의회)이재원 목사 등이 축사가 나섰으며, 시온성교회 기하열 권사가 박봉상 목사에게 취임축하 꽃다발을 전하고, 박 목사의 인사와 본 교회 흥행의 장로가 광고를 경기경목위원 배정길 목사 축도로 마쳤다.

■전국시도 경목실장회 임원
 대표회장 : 박봉상 목사(경기청 경목실장), 부회장 : 김승동 목사(경북청), 김호섭 목사(인천교회), 김중호 목사(충남청), 이상열 목사(경남청), 이형만 목사(전남청), 민홍기 목사(경북청), 총무 : 박중호 목사(예주청), 부총무 : 권오연 목사, 서기 : 김정봉 목사(해경청), 회계 : 문세춘 목사(충북청) 감사 : 오승봉 목사(강원청) 이신기 목사(서울청)



■전국시도경찰청 경목실장

경찰청 안재철 목사, 서울 고재동 목사, 부산 이재원 목사, 대구 조석원 목사, 인천 김호섭 목사, 광주 채영남 목사, 경기 박봉상 목사, 강원 오승봉 목사, 충북 박대훈 목사, 충남 김중호 목사, 전북 윤갑철 목사, 전남 이형만 목사, 경북 김승동 목사, 경남 구동태 목사, 제주 박중호 목사, 해양 남상곤 목사, 김정봉 목사, 경찰대학 박성만 목사, 경찰종합학교 박건구 목사, 중앙경찰학교 남병술 목사, 경찰병원 리금하 목사, 대전 박양우 목사

■경기지방경찰청 경목위원 및 교경위원

경목위원 : 박봉상 목사(경목실장) 경목위원 : 배정길 목사, 권대진 목사, 고명진 목사
 교경회대표회장 : 오원호 목사, 교경회실무회장 : 최석원 목사

■경기도경찰서 경목위원장

수원중부 김영길 목사, 수원남부 안동찬 목사, 수원서부 이동운 목사, 안양 윤광중 목사, 과천 이창섭 목사, 군포 김인기 목사, 성남수정 이호영 목사, 성남중원 손인수 목사, 분당 이현수 목사, 부천남부 유미애 목사, 부천중부 이만혁 목사, 광명 김만중 목사, 안산단원 오광석 목사, 안산상록 김성기 목사, 시흥 장승철 목사, 평택 신용현 목사, 화성동부 류풍수 목사, 화성서부 정관영 목사, 용인 김종원 목사, 광주 육대식 목사, 이천 장재홍 목사, 김포 김광철 목사, 안성 남기홍 목사, 여주 김봉환 목사, 양평 한종환 목사, 의정부 변대영 목사, 양주 이기준 목사, 고양 김민수 목사, 일산 이의현 목사, 남양주 정기용 목사, 구리 이영훈 목사, 파주 윤용철 목사, 포천 여종연 목사, 가평 박지근 목사, 연천 김승진 목사 등이다.

노무현 신드롬

흔히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틀렸다. 왜냐하면 지난 5월 23일 오전, 우리는 엄청난 뉴스를 듣게 된다. 다름이 아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했다는 충격적인 비보를 접하게 된다. 친족들의 부정한 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을 즈음에 경남 김해 봉하마을 뒷산 부엉이 절벽에서 노무현 씨가 뛰어 내렸다는 뉴스다. 그리고는 현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정말이야, 아니지, 만우절은 지나갔는데, 어거지기 만기 어렵다는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는 긴급뉴스로 언론매체에서 노무현 씨가 자살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 시켜주었다.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TV에서 관련뉴스를 보려고 장사진을 이루고 목적을 잊어버린 사람들처럼 떠돌아 돌았다. 파장이 너무 크다. 아니 싸이클론 같은 태풍이 곧 불어 닥칠 것 같은 적막감이 흐르고 있었다. 정부는 유가족과 합의하에 국민장으로 치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884호)의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에 있거나,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던 자에 한하여, 돌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국장(國裝)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 장례기간은 9일이며 밤낮 구분 없이 조기가 계약된다. 주요 관공서는 휴무가 되고, 1979년 박정희 씨가 국장으로 치뤘었다.

노무현 씨는 국민장(國民裝)으로 결정이 됐고, 지난 달 30일 전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엄숙하면서도 아쉬운 마음으로 치뤘다. 국민장은 말 그대로 국민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룬다는 것이다. 그런데 보면 국민장으로 치려야 할 장례가 특정 정당과 단체가 자신들의 장례인양, 분분한 모습을 드러냈다. 상주노릇을 자청하고 나서면서 자꾸만 일이 틀어지기가 시작했다. 급기야는 조문하러 온 정부 고위 관리 및 특정인들을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조문을 허락했다. 어찌구무없는 실례를 범한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고급에도 없는 실없는 짓으로 고인은 물론 유가족에게 더 큰 슬픔을 안기는 것이다. 노무현 씨가 대통령인 것은 기존 정치인들과는 다른 파격적 서민편이란 것이다. 전국적으로 패지저금통을 모아서 힘을 실어 줬고, 한국 최초의 정치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있었기에 노무현 씨가 기적적으로 대통령

에 당선된 것이다. 지난 30일 경복궁에서 거행될 때, 한승수 국무총리의 조사에도 밝혔듯이 권위주의 타파와 지역대립 해소를 위한 공적은 누구나 인정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퇴임 후, 조금씩 드러나는 부정한 돈 자금이 노무현 씨를 압박하게 된다.

‘윤리와 도덕으로 존경을 받아야 할, 노무현 씨의 자존심에 상처가 난 것이다. 그리고는 연이은 악재들, 박연차, 강금원, 노건평, 아들, 딸, 조카사위 이제는 부인까지,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하다 보니 모진 마음으로 자살을 감행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인물인 박연차를 생각해 보면 마음에 안 든다. 겉모습은 마치 사회사업가인양 비취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는 한 번도 사회의 그늘 된 자들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다.

오히려 배부르고 권력캐나 있는 자들에게만 자꾸만 뺨을 들어댔다. 그래서 그가 싫다. 박연차로 인하여 노무현 씨 주변 인물들이 다 부자가 되었다. 집도 큰집, 시계도 여대, 화려한 돈으로 미국에도 집장만을 했다. 누가 보아도 노무현 씨 답지 않은 부르조아적인 냄새를 풍겼다. 노무현 씨는 서민의 상징이다. 그게 생김새이고 존경심이다. “너무 슬퍼하지 마라. 삶과 죽음은 모두 자연의 한 조각이 아니겠는가? 미안해하지 마라.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운명이다. 화장해라. 그리고 집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비석 하나만 남겨라. 오래된 생각이다.” 죽음을 생각하고 겸손하고 나서야 노무현 씨는 자신의 본모습을 찾은 것이다. 유서에 나타났듯이, 이제 와서야 본인이 서민의 대통령이란 것을 깨달은 것이다. 여러가지 추측이 난무하다. 현 정부에 대한 도전이다. 억울해서 죽은 것이다. 분분한 말이 현 사회를 불안하게 하지만, 노무현 씨는 작은 비석을 세워달라고 하면서 원래 노무현 대통령으로 돌아온 것이다. 전두환, 노태우보다는 작은 금액이라고 평균적 정서의 반영으로 부정한 자금 보다는 억울함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요즘은 제정신이 아니다. 죽음에서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본연으로 돌아온 그분의 뜻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정부는 그 국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최창희 [본지 논설위원/서산갈산장로교회]
 cjanghee@kbs.co.kr

2009년 소진우 목사 부흥성회 일정

항상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월 3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5-8 일산금관교회(주성민목사)
 12-14 홍산교회(김양섭목사)
 19-21 갈릴리교회(오덕주목사)
 26-30 필리핀선교집회

2월 2-5 해방기도원(백재욱원장)
 6 안양갈멜산금식기도원(임예제원장)
 9-11 옥산성경결교회(박병정목사)
 16-18 칠곡연합성회(김상호목사)
 23-25 대전소망교회(조성봉목사)

3월 2-4 도원교회(유순기목사)
 축복대심방

4월 6-8 목양교회(주화순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루리교회(이재경목사)

20-23 남양주시기독교연합성회
 27-29 광성교회(임대은목사)

5월 4-7 에스라선교제자훈련센터(이진희원장)
 10-13 봄철축복성회(예복교회)
 18-21 미쁜교회(이봉현목사)
 25-27 선교지방문

6월 1-4 인천마가다락방기도원(박보영목사)
 7-10 새롬교회(김대수목사)
 11 한빛교회(임선택목사)
 15-17 청주기도원(강성진원장)
 22-24 완도순복음교회(장정환목사)
 26 임마누엘수양관(이수영원장)
 29-1 외국교회(장보웅목사)

7월 3 성소기도원(박정연원장)
 5-8 새영교회(이영근목사)
 13-15 산성교회(김장남목사)
 20-22 은헌기도원(조은원장)
 27-30 임마누엘기도원(김순숙원장)

8월 3-6 한열산기도원(이영금원장)
 10-13 에바다응답기도원(최민숙원장)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원장)
 23~25 심야특별대성회(예복교회)

9월 7-11 온누리복음회수양회(임기호)
 14-16 열방교회(신보현목사)
 21-24 교단총회
 28-3 추석주간

10월 12-13 정기노회
 13-15 서북교회(배경락목사)
 18-20 생명의교회(백구식목사)
 25-28 예광감리교회(류인덕목사)

11월 2-3 신원교회(맹조영목사)
 9-11 임마누엘교회(김경정목사)
 16-18 선교지방문
 23-25 경일교회(박조일목사)

12월 7-9 신성교회(김병진목사)
 14-17 해방수양관(백재욱원장)
 20-23 한마음교회(신규대목사)



강사 소진우 목사
 010-5267-1434

- 로고스 세계부흥선교회 부총재
- 열방부흥선교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 컬럼리스트
- 지저스타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 복 교 회
 YEBOK PRESBYTERIAN CHURCH

서울시 노원구 상계1동 1265번지
전화 : 02-3391-9676 / 010-5267-1434

웨신총회 2009하계수련회 화합과 일치로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장영기 목사)가 주최하고 교육부(교육부장 심재호 목사)가 주관한 2009 하계수련회가 "교회의 미래와 발전"이란 주제로 6월 8일(월)~10일(수)까지 전남 목포 신안비치관광호텔에서 전국 19개 노회 200여 명의 목사, 사모가 참석한

"예수님을 편히 모시는 총회"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국에서 모인 목사, 사모를 격려하고 마치는 날까지 편안하게 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줄 것과 총회발전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고 직전총회장 장창수 목사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가졌다.

이어 오후 1시30분부터 총회장배 탁구, 보령대회가 경기위원장 정창민 목사 진행으로 시작되어 단체 전 1.23 등과 개인 전 1.23 등을 결정지어 시상식을 갖고 경품추첨에 들어가 각종 생활용품들을 상품으로 내 걸고 각자 명찰에 부여된 번호에 따라 상

영하고 격려하면서 2박3일 동안 함께 침식을 같이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하는 참된 누림과 힘이 있는 수련회가 될 것을 믿는다면서 수련회를 위하여 수고한 준비위원장 심재호 목사와 진행



위원장 조광표 목사, 이를 위하여 애써준 남부노회원과 그 외 많은 동역자와 사모님들을 격려하고 감사를 전했다. 또한 총회를 위하여 더 많은 기도와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고 생애 있을 수 없는 좋은 추억을 만드는 수련회가 되자고 했다.

또 교육부장 심재호 목사는 "갈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웨신총회 2009 하계수련회를 맞아 총회와 동역자, 섬기는 교회와 가정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기원하면서 모든 회원들을 섬기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하고, 3일 동안 편안한 쉼을 누리고 마음껏 은혜롭게 지내달라는 주문과 함께,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대회가 되길 기원했다.

지난 3일 동안 수련회를 통해 화합으로 하나가 된 웨신총회가 이제 중형 교단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먼저 교단 발전에 큰 비전을 가지고 동참해 줄 것을 확실히 믿고 다짐하는 수련회가 되었다.

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뉴비전 웨신총회"라는 제목으로 환영인사에서 총회원 모두를 환

교단 화합과 일치 교회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계기로



가운데 개최됐다.

남부노회장 조광표 목사 사회로 8일 저녁 7시30분 개회예배가 시작되고 한성노회장 전명철 목사 기도와 성경노회장 이기식 목사가 성경 록10:38~42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목포 만나교회 성도들의 은혜가 풍성한 특별찬양이 있었으며, 대회장(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수도노회장 김준택 목사 사회, 이홍규 목사 기도, 남서울노회장 장한국 목사가 설교에 나섰으며, 오전 9시 중앙노회장 정일량 목사 사회로 교육부장 심재호 목사가 성전예식에 대해 특강과 성전예식을 가졌다. 이어 10시40분 총회 회계 백승대 목사 사회로 고문 임철환 목사(갈보리교회)가 헌법에 대해 특강을 했다.

이어 저녁 8시30분 허성인 목사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 특강에서(그리스도교회협의회 회장) 강사 이강평 목사(그리스도대학교 총장)는 "교회의 미래와 발전"이란 주제로 강의에 나서 교회 성장과 영성에 있어서 많은 것을 조명해 주었다.

또한 9일 새벽 6시30분

품이 주어졌으며, 이날 대상(최신 평면TV)은 한성노회(부노회장) 김상문 목사에게 돌아갔다.

둘째 날 저녁 7시10분 송주창 목사 사회로 진행된 찬양 특강에서 (총회부흥사회대표회장)장창윤 목사가 강사로 나섰다.

셋째 날 10일(수) 새벽 6시30분 한성노회장 이재갑 목사 사회로 폐회예배가 시작되고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본지 발행인)가 엠4:11~16절 말씀을 받들어 "우린 화합으로 하나입니다"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부총회장 정기남 목사는 총회 원로 어르신들, 총회장과 임원들, 선,후배 동역자를 존경하고 사랑한다며, 웨신총회가 빛이 나는 것은 훌륭한 동역자와 여러분이 있고 네조하는 사모님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면서 인사를 했다. 정 목사는 1) 화합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마음을 갖는 것이며, 2)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며, 3) 우린 총회 안에서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갖추는 것이요, 올바른 관계,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데 있다면서, 우린 이 땅에서 웨신총회에 소속된 멤버로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우정을 주문하고, 화합으로 하나 되고, 수련회를 통해 새롭게 충전되어 각자 목회 선상에서 부흥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했다.

총회장 장영기 목사는 "뉴비전 웨신총회"라는 제목으로 환영인사에서 총회원 모두를 환

교단역사의 징검다리를 놓아가자!

가다리던 소망 뜨겁던 열정
만남의 기쁨 미래를 향한
조심스런 전망 그리고 우리의 결단과
결산 참으로 행복했던 순간들
이제 조그마한 징검다리를 만들고
역사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총회장으로 금번에 참석하신
총회원 여러분과
대회를 준비하신 모든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는 할 수 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의 무지개를 또 한번 보았습니다.
유수한 역사를 가진 대형교단들 거기에는
울며 씨를 뿌렸던 선배들이 눈물과 희생과 땀이 있었습니
그리고 그 열매를 오늘 거두며 함께 기뻐하는 모습은
송고하고 거룩한 십자가 정신이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결단코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재도약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결코 새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총회원 여러분 협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웨신 교단의 징검다리를 놓아가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장 장영기 목사



2009 웨신 하기 수련회를 마치고

웨신총회 총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회장 장영기 목사 외 임원 일동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5동 442-105(201호) 전화 02)835-2607 팩스 02)835-2628 E-mail : weshinch@korea.com



한기총 부흥사회 회장 윤호균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는 지난 5월 29일 한기총 회의실로 각 교단 부흥사회 대표회장을 초청, 부흥사회를 조직 화광교회 윤호균 목사(영통)를 한기총부흥사회 신임 회장에 임명하고 부흥사회 임원을 조직한 후 6월 6일(토)오전 11시 화광교회(윤호균 목사 시무)에서 취임감사에 배를 드렸다.

한기총 서기 권순직 목사 사회로 시작된 1부 예배에 한기총 총무협회장 박종언 목사 기도와 여성위원장 박

화광교회 글로벌아 중창단의 봉헌 찬양과 회계 김동근 장로의 봉헌기도가 있었다.

2부 취임식은 한기총 부흥사회 총무 배진구 목사 사회로 진행되어, 부흥사회 상임부회장 문원순 목사의 기도와 합동장동 평북노회장 소진우 목사(분지 사장)가 부흥사회 회장 윤호균 목사의 약력을 소개하고, 대표회장 엄신형 목사가 윤호균 목사에게 회장 취임패를 전달했다. 회장 윤호균 목사는 취임인사에서 "한국 기독교는 120

여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여 국내 5만여 교회와 1200만 명의 성도로 부흥하는 이러한 결과는 교파를 초월한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면서, 앞으로 한기총 부흥사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가장 모범적이고 건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사역을 활발하게 전개해나가는 부흥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 모든 교단 부흥사들과의 연합활동과 부흥사들의 자질 향상에 역점을 두고 초교파 목회자 성회를 국내외적으로 전개해 갈 것과 특히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비방 일일 부흥회를 개최하며, 부흥사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축하객들과 내빈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회장 윤호균 목사는 한기총 부흥사회 상임부회장 문원순 목사, 부회장 장창운 목사, 여성부회장 이경은 목사, 총무 배진구 목사, 서기 김정규 목사, 회계 김상영 목사 등에게 임명패 전달식을 가졌으며, 꽃다발 증정에 이어 세계복음화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가 격려사를, 부회장 장원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산리 금식기도원장 김태복 목사, CTS 기독교 TV 사장 김경철 장로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화광 포도나무 소년소녀 합창단의 축하와 한기총 총무 김태운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를 소개하고, 3부 나라를 위한 기도회가 공동회장 엄정목 목사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기총 명예회장이 탁 목사 축도로 마쳤다.

안산동산교회 감사의 땅에서 하늘의 비전을



예장(합동) 안산동산교회 담임 김인중 목사는 설립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6월 6일(토) 오후 2시 분당 3층 올메이션스 홀에서 장로, 집사 장립과 무임 집사에서 시무집사 취임, 권사 취임과 무임권사에서 시무권사 취임, 명예권사 추대와 장로는 퇴직 등 큰 행사를 가졌다.

담임 김인중 목사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어 설교에 나선 총

회장 최병남 목사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서수원노회 노회장 김충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30주년을 맞은 김운중 목사는 1부 예배와 2부 임직식, 3부 축하행사를 가졌으며 미래를 향하여 비전 선언문이 낭독되고 선언문을 접어 종이비행기를 만들어 날리는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었다.

채익승장로, 세계평화상 수상

기업인으로서의 최초수상, 저서 '하늘경영' 출판기념식도 가져

100개의 교회 개척이라는 불가능할 것만 같은 꿈을 향해 평생을 달려온 채익승 회장 채익승 장로가 기업인으로서의 처음으로 세계평화상 수상이라는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뤄냈다. 채 장로는 지난달 28일 백주년기념 대강단에서 세계평화상 시상식을 가졌으며 더불어 자신의 기업경영 노하우와 신앙이야기를 담은 저서 '하늘경영' 출판식을 겸한 행사에는 국내·외 많은 인사가 참석하여 채 장로의 수상을 축하했다.

1961년 미국 평화봉사단을 창설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로버트 엘 패켓 박사와 한인수 박사에 의해 공동 창설된 세계평화상 역대 수상

자는 레이전 전 미국대통령을 비롯 해라빈 전 이스라엘 총재, 무바라크 이집트 대통령 등이 있다.

채 장로는 어린 시절 품었던 꿈을 따라 삼성, 대우 등 굴지의 기업 사장직을 물려나 자신의 기업을 세우고 1984년 한국 서천 빈민교회를 시작으로 현재 라오스 부양프라방 열린문 호프교 회까지 22개국, 68개 교회 및 학교를 건축했다. 심사위원회는 채 장로의 세계 평화상 시상제 "불우한사람을 위한 사회교육과 지역 및 세계 평화증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귀하의 헌신은 심사위원회를 감동시키고 수혜자를 크게 격려했다"고 평했다.

이반상은 부인 김효신 장로와 함께

공동으로 수여했다.

이들에게는 세계평화의 순회 대사, 세계평화회의의원과 세계인간문화재 등의 직위가 부여된다고 심사위원회는 밝혔다. 이날 채의승 장로는 수상소감에서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아직 이루지 못한 32개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상이라 생각한다고,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이날 채 장로는 이번엔 집필한 '하늘경영'은 20여 년 동안 교회와 학교를 개척하면서 일어난 이야기와 대의 그룹에서 기업을 경영 하면서 경험한 일들을 진솔하게 정리했다.

채 장로는 고등학교 시절 박사학위

를 가진 교수, 큰 회사의 사장 100개 교회와 학교 건축이라는 세 가지 꿈을 품은 채 장로는 1984년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주> 대우 아메리카 사장을 맡았으며 지금은 10개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채 장로는 "이 책을 집필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함이라고 이 책을 읽고 실천에 옮김으로서 실패의 비용을 줄이고 성공과 축복의 비결을 얻게 되길 기도한다. 고 전했다.

취재 성호기자 (ppj01@naver.com)



신앙사상인가 사상신앙인가?

노무현의 죽음을 통해 본 목회자들의 사상진단

신앙사상 그리고 사상신앙은 낯설은 말이다. 다투게 한, 같은 말같이 보이지만 필자는 구분하고 싶다. 신앙사상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사상이지만 사상신앙은 사상이 신앙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둘은 확연히 다르고 그 다른 사상은 평소에는 같은 동지처럼 보이지만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는 그 본색을 드러낸다. 물론 신앙사상도 그 배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한다.

죽음은 그것이 사람이든 짐승이든을 막론하고 슬픈 것이다. 특별히 많은 사랑을 주었을 때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또한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러기에 모두가 죽음의 슬픔을 이기고 사는 것이다. 자연사는 누구도 반항할 수 없고 반항하지 않는다. 그러나 살인에 대해서는 모두가 억울해 하고 분노를 표출한다.

우리는 지난 7일 동안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일을 겪었다. 그 죽음은 자살이었다. 스스로 높은 바위에서 몸을 던져 생명을 끊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다. 그 당사자가 일반인이 아니라 직전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국민은 크게 놀랐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재임시에 박연차로부터 600만 불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대상에 있었고 1차로 소환조사를 받았다. 그의 형님, 조카, 아들과 딸, 그리고 그의 아내까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에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렸고 그 탈출구로 자살이라는 극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심정은 그까 쓴 우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앞으로 받을 고통도 헤아릴 수가 없다. 여성도 남에게 짐이 될 일 밖에 없다."

조중동을 위시하여 보수, 진보를 막론한 언론들은 이를 앞 다퉈 보도하기 시작했고 신문은 큰 박스 기사로 연일 탐에 올려놓았다. 방송들도 이전 태클 때 보다 더 진화된 방송행태를 보였다. 꼭 같은 뉴스를 하루에도 10번도 더 넘게 반복해 보도했고 감성주의의 보도로 사람들의 눈물을 짜냈다.

북한의 핵실험 때에만 잠시 탐자

리를 빼앗겼을 뿐 장례가 치러진 날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뉴스가 없을 정도로 정지되어 있는 것 같았다. 과연 그의 자살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른 다음 진정한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것을 지적하고자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가 이번 노무현의 장례 과정에 소외되거나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아니다. 내세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다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물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았다는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과연 기독교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필자는 단호하게 그들은 신앙사상을 가졌기 보다는 사상신앙을 가졌다고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

N 인터넷 신문에는 "자살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박OO 목사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자살은 죄라고 규정하는 신앙을 도외시한 발언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무 값싸게 팔아넘기는 것 같아 안타깝다.

P 인터넷 신문에는 "노무현 죽음, 예수님 죽음 생각나게 해"라는 제하의 기사에 "매연이 가득한 서울처럼 지금의 한국은, 양심적인 사람들, 뜻이 있는 사람은 전지구 못하게 합니다. 다, 숨을 쉬지 못하게 합니다."고 김OO목사의 추모 글을 소개하고 있다. 그는 노무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을 비등한 자리에 설정하고 글을 쓰고 있다. 이는 노무현의 죽음을 예수님 자리로 올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노무현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자해행위인 것이다. 또한 자살을 양심적인 사람이 견디지 못해 죽었다는 뜻으로 말해 처음 듣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진실을 오도하고 있다.

그뿐인가? 군의문사신장군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해동 목사(인 권목회 자동지회 회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사람들은 양심에 못인 맞은 자들이다. 그의 죽음은 대의를 위한 것이었다. 의미 있는 죽음은 의미 있는 삶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해서 많은

뜻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권오성 목사(NCCK 총무)가 장례식에서 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그 영혼을 하늘의 푸른 초장에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추모 기도였다.

반면 기독교 신앙으로 무장된 한동대 총학생회장 및 지지자들은 교내에 분향소가 설치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내 신성한 총격을 주었고 기독교사회책임은 "그의 죽음을 이용하여 서로를 비난하며 사회를 혼란과 분열로 나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자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D 인터넷신문 "사나이라면 초개 같이 목숨을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한 수 가르쳐 주는 것 같다."는 김OO 성경회 사목의 글 밑에 붙은 댓글에는 부끄럽다는 제목으로 올라온 낙태의 글이 있는데 마지막 대목에서 아직은 살아있는 신앙사상을 만날 수 있었다. 자살이 분명한 죄인데 자살을 미화하는 이런 글을 쓰는 분이 목사라는 사실에 놀라면서 대단히 부끄럽다.

지금만 기도할 때이다. 목회자들은 좀 더 냉철하게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감성적으로가 아니라 이성으로 바라보고 더 나아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할 것이다. 목사의 사상은 신앙이 바탕이 된 사상, 즉 신앙사상이어야지 신앙 이전의 사상이 자리 잡고 신앙은 그 사상을 관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처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큰 제목은 북한의 핵실험과 전쟁도발적 정후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남한의 생존권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불행으로 몰아넣을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도발이다. 우리가 처한 이 세대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신앙의 눈으로 살펴보고서 함심하여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코람데오닷컴 천현욱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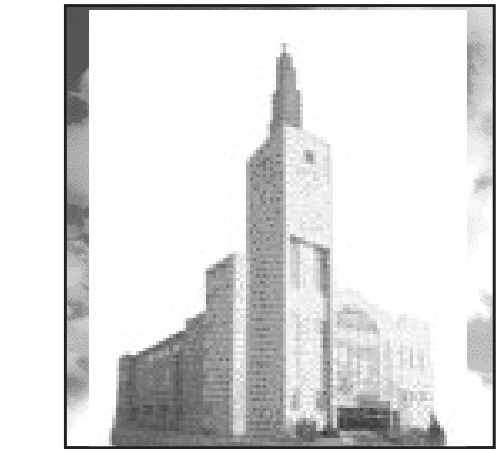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치원 장로교회

- 담임목사: 박 복 수
- 부목사: 김 장 성 • 전도사: 정 원 식
- 원로장로: 류 영 근, 강 천 기
- 은퇴장로: 나 세 영
- 이태은퇴장로: 이 두 길, 정 성 협
- 장 로: 유의식, 김충운, 김성경, 이윤근, 전응규, 김민웅, 정건모
- 지 휘: 임재양, 최효수, 강정민, 강선희, 유창근
- 피아노: 강정민, 임사라, 윤혜림, 전보람, 김현경, 이종훈

예 배	시 간	교회학교	시 간
대예배	1부 주 일 오전 9:00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2부 주 일 오전 11:00	유 년 주 교	주 일 오전 9:00
주 일 오후	주 일 오후 2:00	학 생 회	주 일 오전 9:00
수요일저녁	수요일 오후 7:30	청년 · 대학부	토요일 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심야기도회	금요일 오후 10:00		

TEL : 041) 865-1301
교역자실 : 041)865-1302



생활목표: 남마다 성경읽고 항상 믿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함시다.
심일조 생활로 축복받고 전도에 힘씀시다.
지역봉사: 행복노인대학(수요일)/무로급식(수요일)
이,미용 무료봉사/정학급 지급
사랑의 연탄나누기/조치원 마을 도서관 운영
후원계좌: 예금주조치원장로교회
통 령: 455041-55-000317

FAX : 041) 864-8255
충남 연기군 조치원을 평리 6-1

국제디지털대학교 2학기 학생 모집



추천인 조정환 목사
(국제디지털대학교 교수)

- 조정환 교수 추천시 졸업시까지 30% 장학금 지급
- 3년 조기졸업 가능. 국가유공자 전액 장학금
- 100% 인터넷 수업. 각종 장학혜택 있음
- 사회복지,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청소년 지도사

• www.gduhebron.com www.gdu.ac.kr

■ 학점은행 2학기 수강생 모집(정원 충원시까지)

- 1년(대졸), 2년(고졸) 과정 진행
- 저렴함 학비, 수강과목 컨설팅 무료
- 나이 들어도 쉽게 공부할 수 있음
- 자격증 받을때까지 최상의 서비스
- 목회자, 교역자 우선
- 국가유공자 전액 장학금 지급
- 단체등록은 상담요망
- 준비서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국제사이버 평생교육원

http://ica91.co.kr (등록은 홈페이지에서)

☎ 031-226-9001, 070-7569-9125, 017-211-9125

사선을 넘어서 북한 1호 공훈배우 주순영선교사

[11화] 내몽골서 두만강 인근 이송 후 北 보위부에 인계돼



이번에는 두면 감옥이었다. 내몽골에서 포박 사흘을 달려서야 북한과 인접한 두면에 도착했다. 우리는 짐승패 물리듯이 또다시 철장 속에 갇혔다. "아이고, 아파서 혼났네." 몇몇 여인들이 팬티에서 무언가를 꺼내 주머니와 가슴 패 등에 숨겼다. 그 순간 갑자기 군견과 함께 두 명의 군인이 들어닥쳤다. 여인들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시치미를 떼자 두 군인은 전기곤봉으로 사정없이 그들을 후려했다. 군견은 여인들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렸다. 기어코 한 여인이 어쩔만했는지 괴를 토하며 쓰러졌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여시 돈이었다. 우리는 가지고 있던 돈을 먹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었

는데, 저들은 은밀한 곳에 넣어가지고 며칠째 오다 보니 염증도 생기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때까지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을 줄 아무도 몰랐다. 여기서도 우리들은 짐승패 하듯 장작 패는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아우성으로 그 자제관으로도 지옥이었다. 우리 방의 한 여인은 불려나간 지 세 시간 만에 거의 실신 상태로 되돌아왔다.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런 곤경을 당했 수?" "모르겠소. 나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해서 모른다고 했더니 막 때리고 기둥에 묶어놓는 게 아니오.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참으로 기구한 사연들이었다. 이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정든 고향을 떠나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까. 고국인 북한에서의 삶이 어찌했기에 남의 땅 중국에서 이처럼 모진 고생을 감수하는 걸까. 이전에 내가 몰랐던 북한의 처참한 실상에 치가 떨렸다. 그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과정은 너무 행복했다. 저절로 기도가 나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저를 보살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불쌍한 백성들은 어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거두어 주십시오"

두면의 밤은 하루도 평온하지 않았다. 하루는 옆의 남자 방에서 숨 넘어가는 듯한 비명소리가 들렸다. 내일 복송을 앞두고 쇠뿔을 삼켰다는 것이다. 그러자 몇 명의 군인들이 몰려와 그 남자를 끌어냈다. 그를 병원에라도 데려가려나 했더니 그게 아니라 무자비한 폭행으로 응했다. "악~!" "우와악~!" 고통스럽게 질러대는 처절한 비명이 두면의 밤하늘을 찌릿찌릿 울렸다. '이 중국 공산당 놈들... 언젠가 네놈들에게 천만 배로 복수하리라! 으으으...' 모두들 주먹을 쥐고 이빨을 갈았다.

그러는 가운데 날이 섰다. 드디어 복송이다. 중국 군부대의 트럭이 몇 대 와선 100여명의 탈북자들을 짐작

- 포토샵강의
1. 포토샵의 화면구성과 이미지 불러오기 및 저장하기
 2. 포토샵의 공구함인 '툴박스' -보정작업의 기초 선택툴
 3. 포토샵의 공구함인 '툴박스' -얼굴의 여드름 과잔주름 지우기의달인 '힐링 브러시' 툴
 4. 포토샵의 공구함인 '툴박스' - 포토샵에서 글지도 쓴다 텍스트 툴
 5. 이것을 모르고서 포토샵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 레이어
 6. 어떻게 촬영된 사진을 밝게 보정 - 'Curves'
 7. 웃을 같이압하자 - 'Hue/Saturation'
 8.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려면 크기를 작게 하자 - 'Image Size'
 9. 효과를 주면 사진이 바뀐다 - 'Blur'와 'Sharpen'
 10. 인터넷 사이트에 사진을 올리는 기본 과정

커브(Curves)의 주요 기능은 밝기, 컨트라스트 및 색감을 조절하는 것이다. 그중에서 이번에는 밝기와 컨트라스트 조절하는 것을 배워 보자.

단축키는 'Ctrl+M'이다.

이미지를 열고, 단축키를 누르면 커브 대화상자가 열린다.

그림 1에서 보면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는데 우측으로 그래프가 물려 있으면 밝은 이미지라는 것을 나타내고, 좌측으로 그래프가 물려 있으면 어두운 이미지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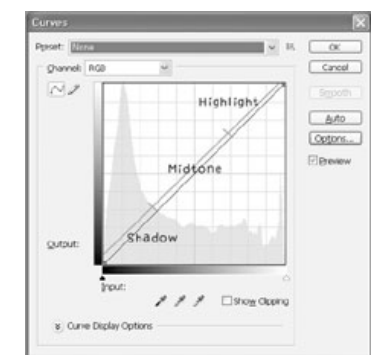


그림 1의 경우 전반적으로 밝기가 고른 편이며, 일부에서 강한 shadow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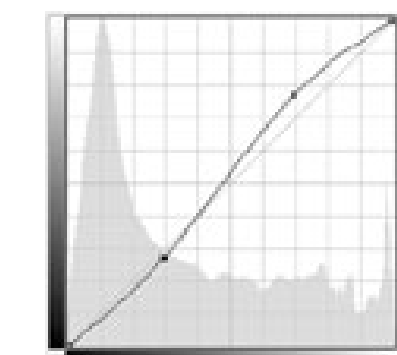
좌우측을 가로지르는 선이 있는데, 우측 상단은 밝은 부분, 좌측 하단은 어두운 부분을 조절한다.

어두운 사진을 예로, 밝게 수정하고자 한다.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우측 상단의 밝은 부분을 조절하는 선의 일부분을 클릭하면 동그란 조절점이 생긴다. 클릭한 채로 좌측 위로 드래그를 하면 곡선이 되며 이미지가 밝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번에는 밝은 사진을 예로, 어둡게 수정해 본다.

좌측 하단의 Shadow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을 클릭한채로 우측 하단으로



드래그를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둡게 조절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조절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좌측의 'Alt'키를 눌러보자. 'Cancel'버튼이 'Reset' 버튼으로 순간바뀌게 된다. 그때 마우스로 클릭하면 초기화 된다.

커브 대화상자에서 그림 2와 같이 조절하면 컨트라스트가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명 'S'곡선인데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은 더 밝게, 어두운 섀도우 부분은 더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컨트라스트를 높여주게 된다. 컨트라스트는 쉽게 말해 밝음과 어두움의 차이인데, 컨트라스트가 클수록 강한 이미지가 되고, 작을수록 플랫한 이미지가 된다.)

인물사진을 수정할 때 자주 쓰이는 커브의 'S' 곡선이다.

다양하게 조절해 보고, 충분히 익숙해 지도록 한다.

건강칼럼

지난호에 이어

오늘 날 우울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도 많이 찾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서 말하는 우울증이나 기타 정신적인 이상이 생긴것이라는 문제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계신다. 성경은 분명히 사람의 마음의 부패와 거짓 그리고 타락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놓임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계시므로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보여 주고 계신다. (시19:7-14, 119:165; 잠16:25; 고전1:25, 318-20, 1013 딤후3:16-17; 베후1:2-10; 요일5:4-5에 근거). (Ref. Self-Confrontation by BCF, p.319)

현대 정신의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그리 오래된 병명어 아니다. 겨우 100여년 안팎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우울을 나타내주는 증상이 인류역사에 있어서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역사의 위인들이나 많은 사

건들 속에서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 혹은 현대에서 말하는 우울증보다 더 극심한 증상들을 앓았던 사람들이 많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은 우울증에 대한 위험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날 말하는 우울증은 사람들이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증상이라는 것이다. 결코 병이나 장애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마음의 감기라고 알려진 이것은 그냥 두어 도 저절로 없어지는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누가 좀 우울하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나 비싼 일원료를 내고 일원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말이다. 특히 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혹은 이러한 극심한 문제를 앓던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지를 보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불의 선지자라고 알려졌던 엘리야는 성경이 불같은 하나님의 능력의 종체

럼 등장한다.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이긴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이세벨이 위협할 때 자기의 생명을 위협을 느껴 좌절하고 도망을 갔다. (왕상 19:1-4) 여기 저기로 쫓겨 다니면서 그가 보여 주었던 행동들에 대하여 현대의 정신과 의사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는 몰래치고라도 바로 폐쇄병동에 입원을 시켰을 것이다. 나무 아래에 떨어져 주저 앉아서 자신을 죽여도 저절로 없어지는 당연한 사람들의 마음이 있으므로 바로 격리치료가 필요한 사람으로 분류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으며 다시 일어선서 멋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음란과 간음 그리고 살인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결과 세상에서 소망을 잃었다. (시38)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편을 읽어보면 그의 상태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볼 수 있다. 엘리야의 경우처럼

다윗의 시편을 현대언어로 번역하여 의사가 아니라 정신과에 있는 사람들이 읽고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를 평가하게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극심한 우울증 환자 혹은 정신분열에 가까운 환자로 판단을 내릴지도 모르겠다. 다윗의 경우처럼 그가 우울하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된 데에는 필연적인 죄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었다. 극심한 범죄의 문제 때문에 생겨진 결과로 인하여 다윗은 미친듯한(?) 증상을 보였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지자에 의한 책망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옴으로써 죄악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었다. 다윗은 시 38에서 많은 우울한 것의 증상과 느낌을 이렇게 설명했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 토폭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매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시 38:3-17)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분노를 갖고 스스로 죽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했던 요나와 같은 사람도 (욥41-11),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함으로써 마음의 심한 통곡을 겪던 베드로도 (마26:69-75) 현대의 정신의학에서 본다면 거의 미친(?) 사람의 범주에 들어갈 것이다. 이들의 마음 상태나 감정의 기복은 너무 극심히 커서 아마도 모두 격리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사람들이었음에는 틀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이들이 어떤 격리치료를 혹은 우울증에 먹는 약을 먹고 상태가 호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그 후에 잘 감당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속에 변화되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군으로 살아가다.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는 배반의 대가로 받았던 은30을 성전에 집어 던지고는 목을 매어 자살을 했다. (마27:1-5) 만약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가 정신과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받았다면 그의 삶이 바뀌었을까? 아니다. 분명 아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유다의 삶이 바뀌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세상의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데 그분께서 유다를 그냥 두시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저마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또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본다. 분명한 것은 유다가 아무리 유능한 정신과의사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근본적인 마음은 바뀔 수 없었을 것이다.

우울하게 되는 데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 죄를 지음으로써 발생하는 우울함의 문제와 죄를 짓지 않고도 여러 가지 육신적인 요소들 때문에 생기는 우울함의 원인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육신적인 신체의 문제가 있을



본지 성임운영이사김주원 박사

때에도 사람들은 비성경적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아래의 목록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기를 원하시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우리들 자신을 조심스럽게 성경적으로 점검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잠11:4, 18:13; 사55:8-11; 마7:1-5; 고전11:31; 빌4:6-7; 약1:5, 22-25). (Ref. Self-Confrontation by BCF, p.320)

다음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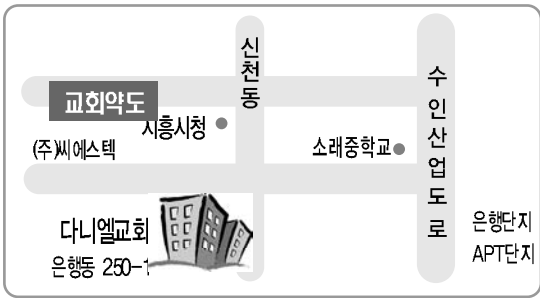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옹하는 교회(눅 4:21)
오직기도, 오직전도, 오직예수, 오직믿음



담임 고성규 목사



교회약도
(주)에스텍
시흥시청
신원동
소래중학교
수인산업도로
은행단지 APT단지

하나님이...모든 학문과 재물에 명철하게 하신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 1:17)

교회 031)313-3464, 312-2613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련원)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 (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 (Minister) www.scogop.net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절)

생명의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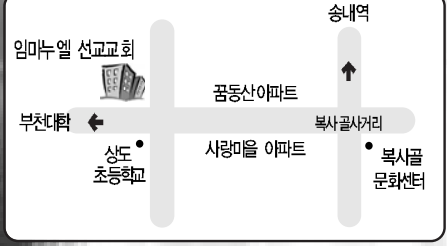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배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예배	주일	오후 3:00	이천수련원
유치부예배	주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예배	주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성전
스페인어예배	주일	오후 1:30	지하성전
새벽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2시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 [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 02-464-3107]

임마누엘 선교교회

현 병 우 목사



송내역
↑
공동산아파트
북사공거리
·북사동 문화센터
↓
사랑마을아파트
·북사동 문화센터
←
부천역
←
상도초등학교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철야: 오후 9시
월·화 영상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당신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정상껏 치료한 후에 환자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되면 퇴원해서 집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때에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도 되나 돌려보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한 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의사의 정신 건강 측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환자가 있는 방에 수도 장치를 해놓고서, 수돗물 꼭지를 적당히 열어놓습니다. 그러면 수도물이 병실로 쭉쭉 흘러서 방에 물이 가득히 고이게 되잖아요. 이 때 환자에게 걸레를 주고는 물을 닦으라고 합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수도꼭지부터 잠그고 나서 물을 닦습니다. 이렇게 되면 퇴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 치료가 덜 된 환자는 방에 물이 가득 고인 것을 보면서 물난 열심히 닦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파악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이것을 추적해 들어가면서 근본 문제부터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내가 당한 현

실의 근원을 파악하지 못합니다. 뭐가 어디에서부터 잘못 되었는지 분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합니다. 자신은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이 이래서 그랬느니, 사람이 잘못 만나서 그랬느니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크고 작은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건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에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을 까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무능해서 일까요?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건강하지 못해서 일까요? 못 사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한 가지예요. 그것은 주인을 잘못 두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것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거나, 혹 문제가 생겨도 지혜롭게 넘어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 바로 알고 그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심지어 기계까지도 주인을 잘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 정북경성도남이 1백두의 소 키우는 것을 보는데 어느 집의 소보다도 살도 찌고 투실 투실하고 건강함을 보게 됩니다. 그 주인해 값도 더 받는다고 합니다. 소도 주인을 잘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신실하게 소를 먹이고 잘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습니다. 비록 말도 못하고 생명도 없지만 운전하는 주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잔 고장 없이 오래오래 쓰기도 하고, 쉽사리 고장 나기도 합니다.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 엔진의 질이 다르고 수명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떨습니까?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성격이 어떠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남부노회장 : 조광포 목사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생각과 자세와 지위와 삶이,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지는 겁니다. 주인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성도들의 주일은 주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양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인은 나하고는 달라야 합니다. 주인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자격과 같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인의 자격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WWW.JTNTV.KR 인터넷신문방송 설교로 들어가면 은혜로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한 부부생활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고, 5월 24일은 부부주일입니다. 부부의 날 운동은 1995년 5월 21일 경남 창원에서 권재도 목사 부부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003년 국회 본 회의를 거쳐 2007년 5월 2일 대통령령 20045호에 의해 국가기념일로 선포되었다. 가정의 달 5월 둘째(2)일 하나(1)되어 행복한 부부로 살자는 뜻이었다. 창 2:24-“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경말씀에서 착안하였고, 세계에서 처음 한국의 한 목회자에 의해 제언된 부부의 날이 한국 전국은 물론 앞으로 세계 부부의 날로 지켜질 전망이다.

1. 부부는 가정의 중심축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축복하시고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축은 부부이다. 창 2:18-25절 말씀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두 사람을 만드어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하셨습니다.

◎ 유대인 어머니가 결혼을 앞둔 딸에게 보낸 편지이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남편을 왕처럼 섬긴다면 너는 여왕이 될 것이고, 남편을 돈이나 벌여 오는 하인으로 여긴다면 너는 하녀가 될 뿐이다. 네가 지닌 자존심과 고집으로 남편을 무시하면 그는 폭력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니 언제나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세워 주거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나 가족이 방문하거든 밝은 표정으로 정성껏 대접해 주어라 그

러면 남편이 너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너를 소중히 보적으로 여길 것이다. 항상 가정에 마음을 두고 남편 섬기기를 왕처럼 해 주거라. 그리하면 남편이 네 머리를 아름다운 관을 씌워 줄 것이다.”

행복한 부부는 서로를 격려해 준다. 불행한 부부는 서로를 무시하며 공격한다. 이기심과 무관심은 가정의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간다. 벤전 2:9, 부부는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중심축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다.

2. 행복한 부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 엠 5:22-23절의 말씀은 교회론을 가정에 비유해서 교훈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결혼 예식 때 많이 인용하는 복된 말씀이다. “엠 5:22-33, 고전 7:4-5, 고전 11:8-9, 창 2:18” 성경말씀 여러 곳에 가르치는 부부의 행복은 아내가 남편에게 그 권위를 인정해 주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이란 것이다. 골 3:18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가 남편을 황제로 모시면 아내는 왕후가 되는 비결이다.

3. 행복한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엠 5:25, 골 3:19, 남편이 아내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는 말씀이다. 그리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다. 이유



박복수 목사(본지 상임이사)

는 엠 5:28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잠 5:15-19절,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결론」 행복한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벤전 3:1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5절에 하나님께 사랑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써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7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나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는 자녀 출가시킨 후에도 함께 살아야 하고, 천국에도 함께 가야 할 몸이다.



임마뉴엘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본지 부사장)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1단계 구원은 오직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요, (요 3:16, 롬 10:9-10) 구원의 2단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님을 모신 성도로서의 삶(행위)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골 3:10-14) 구원의 3단계는 성도의 행한 행위에 따라 구원을 이룬다고 하였는데 (고전 15:40-44, 벤전 1:9) 우선 1단계 구원론만 정확히 알고 받았다면 결단과 사미리 이단 종파에 끌려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원은 죄와 허물에서의 구원이요

구원론 (2)

(엠 21-5)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요 1:12) 물과 피로서 (요 19:34) 만이 죄와 허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구원 얻은 성도는 성령의 인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롬 8:14-17)

우리의 죄와 허물은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명확히 아는 데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27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며, 창세기 2장 7절에 흙대로 성령: 되개를 모아 빚으시고)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명(산영)으로 지으신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담은 뱀 (용 사단 또는 마귀)에게 속은 줄은 배필 하와가 먼저 먹고 건네준 선악을 알게하는 실과 (창 3:1-6) 즉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먹으면 정벌(반드시, 꼭) 죽으리라 (창 2:16-17) 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지은죄요, 우리 모두가 태어나서 한번은 죽고 심판 받게 된(창 3:19, 하 9:27) 아담으로 인하여 유전된 원죄입니다. (롬 5:14, 12)

죄를 사할 피에 대하여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라 하였고 (창 3:21) 짐승의 가죽을 벗기려면 짐승을 죽여야 하고, 죽으면 피가 흐르고, 가죽을 벗겨도 피가 흐릅니다. 창 3:22에 우리 죄를 대속 하시려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고 롬 17:11에 십자가에 못박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흘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요 19:34)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유전된 첫 사람 아담의 죄를 사하셨고, (히 9:22, 롬 5:17) 흘리신 물은 우리가 태어나서 지는 모든 허물(모든 우상숭배와 엠 2:2, 고전 10:20-21)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막 7:20-23)과 그 생각으로

로 저지른 허물)을 사하셨습니다. (히 10:22, 엠 5:26, 골 3:25)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무덤에 묻히시고(막 27:50, 57-61),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살리심으로 (롬 8:11, 벤전 3:18)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받으사(마 28:18),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1단계 구원은 우리가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아담의 원죄와 태어나서 저지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롬 10:9-10에 있는 말씀대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까지의 모든 죄와 허물은 사함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지을 죄와 허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구원 받은 성도가 받을 물침례와 성령 침례까지가 가장 기본적인, 또한 간단하고도 명확한 1단계 구원론인데, 이 은혜에 대하여는 다음 지면을 통하여 함께 은혜 가운데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건축물이 무너지듯이 구원론이 없거나 반박하면 믿음은 무너집니다.*

구로초원교회 목요찬양집회로 부흥하고 있다

“당신의 길이 험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을 열망하십시오, 당신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라는 주제가 아래 끊임없이 부흥하고 있는 구로초원교회(담임 김태권 목사)이다.

동 교회 김태권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신총회) 경성노회 노회장장을 맡고 있다.

그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안병을 위하여 구로경찰서 경목실 사무총장장으로 사역하고 있다.

김 목사는 또 총회 부흥사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고 남달리 주님의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으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역하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능한 목회자이다.

구로초원교회는 소문난 교회로서 그 비결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매주 목요찬양집회와 기도로 영적인 삶에 축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김태권 목

“주님을 열망하십시오, 당신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사는 지난 61(8월) 목요일 8시 한국부흥사회의 회 총재 피종진 목사를 강사로 초빙, 어린 학생들과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과 찬양, 기도로 불같은

역사가 일어난 집회가 됐다. 구로초원교회는 서울시 구로2동 725-9호 소재 2층, 3층을 사용하고 있다.

삶을 변화시키는, 글로벌시대 인재양성 및 복음화를 위한

획기적인 말씀축복 [전도집중 말씀집중 독서집중] 특별집회

부흥회 + 전도집회 + 재직세미나 + 교사세미나 + 수련회 효과

집회특징

- 모든 전도 프로그램, 교회성장 프로그램에 날개를 달아줌.
- 말씀으로 무장할수 있어 성도들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음.
- 목회전반에 큰 활력을 받음(전도, 기도, 설교, 교육)
- 전도에 자신을 갖게 되며, 헌신, 충성의 사람으로 변화됨.

강사특징

- 확실한 동기부여
- 열정과 감동이 있음
- 삶의 희망과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함

주관: 말씀사랑운동본부
후원: 지저스 타임즈
집회유치문의: 041)904-0675
011-9119-7661(직통)

전국 교회 지도원 집회, 전도 집회, 목회자 세미나, 교사세미나, 수련회, 각기관 특강
※ 집회를 초청해 주신 전국교회, 기도원, 각기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실패하지 않는다.

강사 김동기 목사(합동) 말씀사랑운동본부장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장하는 대광교회로 오십시오!!

예배안내			
예배	시간	장소	비고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30	본당	성경강해
주일 1부예배	주일 오전 7:30	본당	
주일 2부예배	주일 오전 10:00	본당	열린예배
주일 3부예배	주일 오전 11:30	본당	
주일 4부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특별예배로 들을 수 있음
주일 5부예배	주일 오후 4:00	본당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수요일 오후 9:00	본당	참이기도회
각구역별예배	각 구역별 지정시간	각구역별 요구장소	매월 마지막주는 연합예배

주일학교예배안내			
부서별	시간	장소	대상
유치부	주일 오전 11:30	본당 지하 교육관	취학전 아동
유년부	주일 오전 9:00	본당 지하 교육관	초등학교 1-3학년
소년부	주일 오전 9:00	별관 교육관	초등학교 4-6학년
중등부	주일 오전 11:00	별관 교육관	중학생 및 동급연령
고등부	주일 오후 9:30	별관 교육관	고교생 및 동급연령
청년 2부	주일 오후 4:00	본당	19~24세 미혼
청년 1부	주일 오후 4:00	본당	25세 이상 미혼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광교회

Presbyterian Church

451-061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409-10
TEL. 031-384-6826

대광교회 담임 염영수 목사

서울예일신학 (사명자 수시모집)

- 신학과 - 사명(은사)자 학력/나이제한없음
- 연구원 - 신학교 졸업자(남,녀 목사안수희망자)
-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사 2급)
- 학점운영제, 학위과정(학사,석사,박사)운영

www.syeil.com

전화 02)2293-0045
H·P 010-7405-9191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를 모십니다
(등급판정-1급-3급자환영)

www.1004tv.net

전화 033)541-0687, 010-7405-9191

칼빈탄생 500주년 ‘한국장로교 정체성 회복하자’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한국장로교회가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를 열고, 뜻 깊은 하나 됨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들은 칼빈의 개혁정신을 계승해 한국 장로교단의 정체성 회복하고, 한국교회의 화합과 일치를 위해 힘을 결의했다.



▲21일 오후 5시 서울교회에서 개최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대회(뉴스마션)

기념대회 첫날, 칼빈의 제네바교회 예배 형식 재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사업회(회장 이종운 목사)는 21일 오후 5시 대치동 서울교회에서 기념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대회 첫 순서는 칼빈의 제네바교회 예배(1542년) 형식을 따른 기념예배로 문을 열었다. 성도들은 예배 시작과 함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한 후 십계명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것을 고백했다.
뒤이어 ‘거복하고 흠이 없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한 신복운목사는 “이 땅 위의 교회는 세상 존재의

일부이므로 완전할 수는 없지만, 구원과 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한다”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잘못된 현실을 직시하고,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설교 후 성도들은 이 나라 통치자들과 목회자, 그리고 박해 받는 자들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구제 헌금을 드렸고, 성만찬 예전에 참여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예전에서 성도들은 떡과 잔을 높이 들어보이며 ‘성찬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성도들에게 다스 생소한 형식이었으나, 말씀과 성찬 그리고 구제의 의미를 강조한 칼빈의 신앙과 사상이 고스란히 재현된 가운데 치러졌다. 한편 예배가 끝난 후에는 여러 기독교음악인들의 공연으로 꾸며진 기념음악회가 열렸다.



▲성도들이 다함께 잔을 들어보이며 성찬과 헌신을 다짐하고 있다(뉴스마션)



22일 칼빈 공로상 수상 및 학술 심포지엄 등 열려

이번 기념대회는 21~22일까지 진행됐다. (22일) 서울교회에서는 오전 10시 경건회를 시작으로, 스칼빈 공로상 시상식 및 칼빈 명예도로 명명식, 스칼빈과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이 진행됐다.

칼빈 공로상 수상자로는 이종성 박사(한국기독교학술원장), 한철하 박사(전 아세아연합신학대 총장), 신복운 박사(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 정성구 박사(전 대신대 총장), 이종운 박사(한국장로교신학회장), 이수영 박사(새문안교회) 등 6명이 선정됐다.

한편 오후 1시 20분부터 열리는 학술 심포지엄에서는 이종운 목사와 프랑스 개혁신학회의 폴 웰스(Paul Wells) 박사가 주제 발표를 하며, 한국장로교단을 대표하는 70여 명의 신학자들이 7개 분과에서 각각 10편씩 총 7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기연목부협 대표총재 오범열 목사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 취임예배

기독교연예인 목회자 부흥사 치유선교협의회 1기 부흥사연수 및 총재 대표회장 대표총재 오범열 목사(안양, 성산교회), 대표회장 강신숙 목사(사문교회) 취임예배가 지난 5월 27일 종로 5가 여전도회관 2층에서 있었다.
(명예총재) 윤용섭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 (수석부총재)김희자 목사의 기도, 정임분 목사가 성경봉독(창 15:4-7절)하고, 대표총재 오범열 목사가 “꿈은 이루어집니다”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많은 교계 지도자가 참석 각각 축사와 격려사, 권면을 맡았으며, 윤영총재 채금애 목사가 “부흥사의 자

질”이란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또한 나라와 민족, 기독교연예인 부흥사, 총재, 대표회장, 군선교, 노인선교, 미용선교, 교회 부흥과 전도, 교도소 선교를 위하여 김정희, 강종순, 최애현, 원력희, 이요나, 김창기, 임원석, 조한수, 김성률, 이순희, 문지영, 윤병희 목사, 장로 등의 기도가 있었으며, 대표

총재 오범열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협의회는 하반기 사업으로 결손 가정 아동돕기 교도소 선교를 위한 기도찬양성회, 지역부흥성회를 준비하고 있다.



목시기 권력의 시너노릇하면 범죄 경향교회 석기현 목사, 7일 주일 설교에서 통렬히 비판

모두가 노란 색깔과 꽃불 앞에 주눅이 들어 눈치만 보고 있는 때에 비판과 물매를 각오한 듯 경향교회 석기현목사는 작심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7일 주일 설교에서 사무엘상 31장 1-13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울의 죽은 것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그는 첫 대지에서 “자살은 생명의 주권자에 대한 믿음에 전혀 없는 ‘이기주의의 극치’”라고 하면서 사울의 자살을 극심한 이기주의로 진단했다. “4절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새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가 두려워 하노라” 하지만 당면병사가 주저하지 자신의 칼에 얹드려져 죽었다. 그는 사울은 자신을 지키려고 죽었지만 실제로 훨씬 더 큰 모욕은, 바로 사울의 자살로 인하여 그를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이 당하는 모욕과 그가 겉으로 는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화에 돌아가는 모욕이었다고 진단했다.

석목사의 설교의 절정은 결론 부분에 있었다.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격양된 음성으로 현시국의 상황을 비판해 나갔다. 세례요한을 연상케 하는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그는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목사가 조문하는 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단정하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목사가 권력의 시너노릇을 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석목사는 “어떻게 죽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었는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들만 영광스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석목사의 설교는 동영상 갤러리에서 들을 수 있다)
석기현 목사 설교 일부전문
중략

“저는 최근의 고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자살을 두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모를 방자한 선동과’ 동정에 휩쓸린 혼란’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은 죽기 직전까지 자기 아내가 빛을 갖기 위해 쓴 돈 1백만 불과 퇴임 직전에 자기 아들의 계좌에 입금된 5백만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대부분의 상식적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그 돈에 대하여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

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고인이 자살을 하자 갑자기 그 모든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 중단’이 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무죄한 사람들’을 검찰과 언론이 몰아서 죽인 살인 사건’으로 둔갑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쫓겨서 도주하다가 포위되었을 때 자수하지 않고 투신자살을 해 버리면 그 용의자는 절로 ‘무죄’가 됩니까? 여러번 같은면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무죄인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데 경찰이 자기를 쫓아온다고 해서 자살하겠습니까? 일단 재판이라도 받아보고 무죄판결이 나오면 진짜 ‘크게 웃어 줄 수’ 있을 것이며, 만약에 유죄가 된다면 그때야 진짜 억울해서 자살할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변호사 출신으로서 법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실 분이 말입니다. 사실로 말하자면, 다른 용의자들이 그런 경우에 자살하면 자기 유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 분명하고 재판판에 되어도 아무 가망 없는 줄을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자살한 것이라고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만 억울한 죽음이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검찰이 ‘살인마’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똥판지같은 논리입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나라의 경찰들은 아무리 유력한 용의자라 해도 절대로 추격을 하지 말아야지 용의자가 도망치다가 빌딩에서 투신자살한 해 버리면 경찰관들이 오히려 살인죄로 처벌받을 판인데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특히 정치가들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우에도 검찰은 아예 건드릴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지요.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검의 갑갑까지 휘둘러도 괜찮지만 일단 현직에서 물러난 정치가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조사를 하면 영락없이 ‘정치보복’ 행위에 가담한 ‘정권의 시너노’ 전

락되고 마는 판에 도대체 누구를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고인의 죽음을 두고 ‘자살’이라는 단어조차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서거(逝去)’이고 가겠해야 ‘투신(投身)’ 정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으로서 이런 죽음이 명예로운 것이며,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택한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제 눈에는 아무리 보아도 ‘불명예스러운 자살’일 뿐입니다.’ 무능했음지는 몰라도 깨끗했다. 그 자랑하시던 분이 그 ‘깨끗함’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사실이 드러나자, 국법에 의한 ‘모욕’을 당하느니보다는 자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는 쪽을 택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판단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줄 알지만, 저와 똑같이 생각하는 국민도 그보다더는 더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왜 고인의 죽음을 미화시키는 보도 일색인 것입니까?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사한 ‘이 사회의 엘리트’요 온 국민에게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사실과 판단’을 알려 주어야 할 ‘이 나라의 양심’의 소리들이 어찌면 그렇게 도 무슨 독재국가에서나 볼 수 있을지 않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영무채 보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에서 ‘노란 모자 쓴 사람들’만 국민입니까?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법치국가로, 선진국으로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참고 또 참아주고 있는’ 국민들은, 어느 교수의 빠져진 표현대로, 믿고 뿔아준 정권에 의하여 오히려 영원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50퍼센트 이상의 지지를 받고 뽑힌 현직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어도 짓밟힘을 당하고 영결식장에서 조의를 표하는 중에도 그렇게 모욕을 당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상식 있는 다수인이 지극히 비상식적이며 불법적이기까지 한 소수의 난동 앞에서 깍소리를 못하는 나라, 대권은 물론 국회까지도 다수의 의석을 국민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 흐르는 미꾸라지’같은 좌파의 선동에 완전히 끌려 다니는 나라, 공정해야 할 언론에서는 몇몇 PD들의 편파 보도와 조작보도들만 판을 치고 군대 군대에서 외로이 외치는 바른 소리들은 악성댓글의 홍수에 순식간에 파묻혀 버리는 이기가 막히는 나라 -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이 겨우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생각하니 정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일부 목사들의 행동은 더욱 가관입니다. 기독교인도 아니었으며 더욱이 그처럼 불신앙적이고도 불명예스러운 자살로 인생을 마감한 고인에게 목사가 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설교를 하며 교회 찬양대가 가서 도대체 무슨 노래로 조문한다는 말입니까?

전직 대통령이면 ‘신자’가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저는 그것이야말로 ‘목사가 권력의 시너노릇’을 하는 것이며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일컫는 범죄’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광고문의

www.JTNTV.kr

지저스타임즈 등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있어서

홍보효과가 뛰어납니다.

(배너광고, 팝업광고, 일반지면광고)

광고문의

광고국 : (02)407-6574

F A X : (02)763-02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당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분	시간	구분	시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 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청소년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찬양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 · P 010-8585-9137

대한예수교 장로회 핵심교회

www.haeksim.net

Tel. 02)430-9107

Fax. 02)401-7954

서울시 송파구 거여2동 251-42호 (효성아파트 205동 앞)

이선 목사

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장년부	새벽 5:00	대예배실
	1부 주일 오전 7:30	
	2부 주일 오전 9:00	
	3부 주일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저녁 7: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안내

기관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유치부실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어린이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중고등부실
	주일 오후 3:00	
청년부	토요일 오후 7:00	제1교육관
성경대학	금요일 오전 10:00	제2교육관
새벽예배	매일 새벽 5:00	대예배실

와 보라! 영광제일교회로...

매일 밤마다 8시 기도회

매주 목요일 낮 2시 특별찬양치유

▶특별찬양 : 김명희 ▶드림 : 손정철 ▶피아노 : 김윤미

예배시간안내

주 일 낮 예배	오전 11시
주 일 오후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배	오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집회	오후 2시
금 요 예배	오후 8시
학 생 예배 (토)	오후 5시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8시기도회(매일)	오후 8시

신학생 · 목회자 · 사명자 영성학교 오픈 준비중

교회부설 토요공부방(초 · 중 · 고) 및 악기지도(무료-토요일)

피아노, 드럼, 플루트 문의: 010-6677-6886

성남시민을 위한 무료 재정상담 세미나!

강의 내용

- 소득지출로 보는 우리가정
- 위험관리(보험알고 가입하자)
- 세금절약매적금 · 펀드 이해하기
- 돈에 시달리지 않는 가정을 위한 재무설계

강사 프로필

- 포도재무설계 상담위원
- 한림성심대학 재테크세미나
- 네이버재테크 상담위원
- 네이버전문가 칼럼니스트
- MBC 생방송화제집중 부채클리닉편 출연

강사 송미순 목사

강사 프로필

451-80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22(교회)

Tel. 031-756-9826(교회) Mobile. 010-8200-7791

영광제일교회



니다. 그러면 차에 모신 학교 학장이 찾아와 신학교 공부를 하라는 적극적인 권유에 결국 결단을 내리고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물질이 없었고, 빈 손으로 학교를 다녀야 했

지난 5월 25일 한국기독교부흥사회의 여성대표회장으로 취임한 문막벤엘교회 담임 정초자 목사,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부흥의 역사는 오직 성령의 탄생을 고대하고 오직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 성령충만 받아 이 민족과 사

교 4학년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겠는데,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것은 개척교회를 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목회의 첫 출발이 된 것입니다. 얼마 후 축사를 임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18개월 만에 150여명

도 등록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금하는 것도 기도하고 마음 문을 열렸을 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것도 몇 년쯤 출석하다가 마음에 결정이 되었을 때 등록을 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문막벤엘교회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구리시에서, 서울에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먼 거리에서도 출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출석 교인이 주일학교와 청년들, 학생들, 장년부 등 500여 명이 됩니다. 저는 사실 숫자를 안 봅니다. 급구 돈에 치우치지 않고 목회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합니다. 좋아요...

●“소외되고 외롭게 살고 있는 지역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노인복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 정초자 목사, 그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 담게 사랑을 듬뿍 담고 교회를 섬기며 노인들을 섬기고 있다.

처음엔 어려운 분들을 몇 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는데, 노인들이 그 수가 더 해지면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노인복지자를 하게 되었고, 지금은 멀리서 가까이서 400명에서 많게는 500여 명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

파듯합니다. 또한 인정이 많고 포근함을 주는 부자집 마님처럼 친근감이 듭니다. 평범한 가정주부와 같고 천상 사모님 타입인데, 어째서 이러한 능력이 나오니까? 솔직히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십시오

“첫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세워진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밤낮 성전에 앞드려 기도하면서 심부름만 한 것입니다. 게다가 여자의 몸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심부름만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것이란 오직 기도 외에 없었습니다. 돈도 없고, 교회를 건국할만한 땅 한 평도 없는데, 비록 낡아빠진 축사이지만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기공에서부터 성전이 완공되어 입당예배가 드려지기까지 IMF가 터짐 속에서도 오직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교회 건축이 중단 되는 일 없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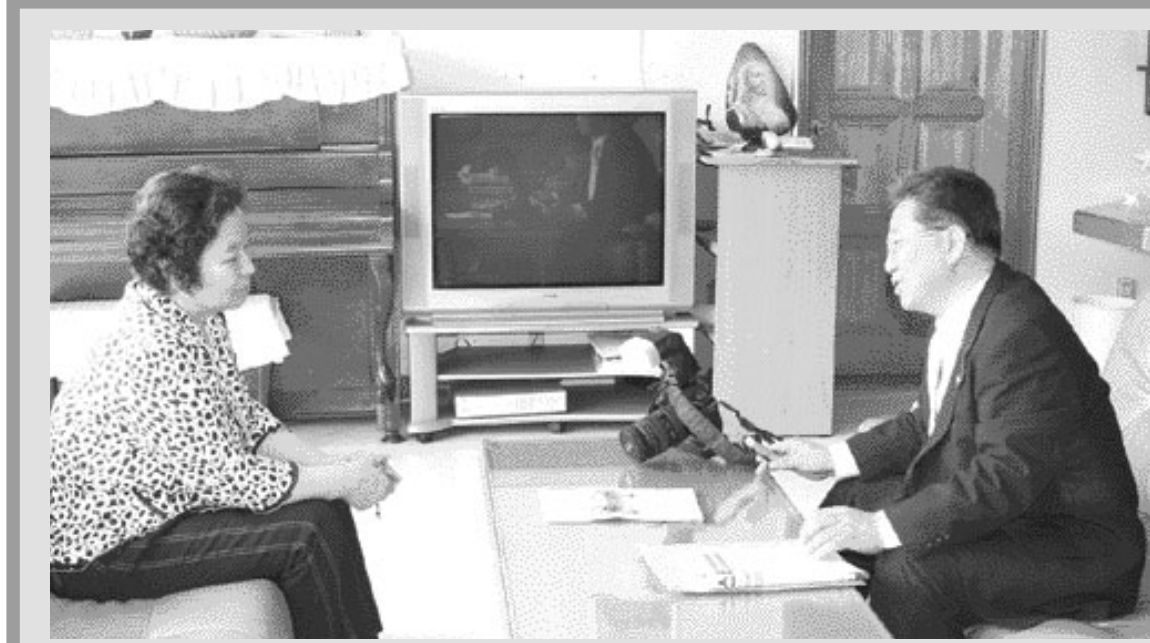
인대학에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무당들도 입학하고 공부하고 있고, 그들이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와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교 때마다 노인들에게 하는 말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식이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대신 죽어 줄 수도 없다는 것. 오직 날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을 위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많이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나의 목회관은 내가 만난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염되지 않은 예수님, 그대로 변치 않으시고 만나주신 예수님을 저들에게 심어 주는 일입니다.

이 세상은 오염되고 말씀도 오염되고 변질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염되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치니 과수원에 과일 하나라도 주인의 허락 없이 따먹지 않습니다. 그전에 어느 아이가 과일을 하나 따 먹고 3월 동



화와 교회를 변화시키는 사역을 위하여 이 한류 주님의 도구로 바쳤습니다. 하는 정초자 목사.

본지와와의 인터뷰에서 정초자 목사는 이렇게 말한다. “원래 불교인으로서 불경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깨달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알았습니다.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어느 날 꿈에 음성이 들리는데 교회를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음성은 몇 번이고 계속되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한 이 후 신학교를 가리는 지인들의 권면이 많았지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떻게 내가 신학교를 갈 수 있으며 거절도 많이 했습니다.

교인이 모여 들었습니다. 사실교회하게 세워진 이 자리가 온통 낡아 투성인 축사가 있던 곳이었, 잡지리가 없어서 이 낡아나는 자리에서 잠을 자며 목회를 해 왔습니다.

허허벌판인 이 자리에 비록 축사이지만 비전을 가지고 기도 했습니다. 이 왕이면 경제력이 있는 부자들과 훌륭한 박사들, 교수들과, 명예 권세자들을 보내주옵소서 하고 감단에서 잠을 자며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기도를 들어주셨고 명예자들, 권세자들, 경제력이 있는 부자들과 박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교인들 중에는 병원 원장과 대학교 교수,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3년을 교회에 출석을 해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노인복지자를 위하여 개방을 하고, 실버타운 못지않게 각종 시설을 갖추고, 노래방, 에어로빅 시설과, 외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실버대학, 외국인들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교회 내에 여러 교실을 두고 훌륭한 선생들과 노인대학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사우나 시설을 갖추고 목욕도 시켜드리고 있고, 게다가 이·파용시설을 갖추고 노인들의 머리 손질을 지금 정성으로 해드리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시는 일에 감동을 받고 있으며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정 목사님은 지난 5월 25일에 본 교회에서 한국기독교부흥사회의 여성대표회장으로 취임하셨는데, 목사님의 첫 인상이

다. 제가 한 일은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무 일폰에서 하나님이 문막벤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퇴신 장로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으며, 다 결혼을 했고, 아들과 사위가 목사입니다. 아들과 딸 사위가 본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들과 사위가 다 외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고 있었는데, 여 목사라는 것 때문에 시비가 많았고, 교회가 시험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노인들이 너무나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노

안 회개했는데, 그 후로는 떨어진 과일 일지라도 주인이 주기 전에는 주위 먹는 일이 없습니다. 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말세에 성도들에게 깨우치는 일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회의비전은 원죄와 자범죄에서 대해서 확실히 가르치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일이고 영계가 열리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도록 성도들을 깨우치는 사역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 철야하고 새벽기도회를 가지며,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목회관이요 비전입니다. 감사합니다.

낡아나는 축사에서
중형교회로 성장한
벤·엘·교·회

문막벤엘교회를
말고 있는 정초자 목사



열두광주리기도원 정기성회

매일 오후 3시 홍해의기적성회

찬양 + 말씀 + 기도
응답 + 치유 + 회복

김평호 목사 부흥성회 일정

5월4일~5월7일
5월11일~5월14일
5월18일~5월25일

열두광주리 기도원
영종도 운하 기도원
요코하마 니카타 부흥성회
[국제 그리스도 기도원]
영광제일교회 창립2주년
세계명성교회 부흥성회
보아스 사랑의집
열두광주리 기도원
헤브론 기도원 목요성회
성남 천보기도원 부흥성회
총회 수련회
열두광주리 기도원
일본 구국금식성회
[일본요코하마]

5월31일
6월1일
6월7일
6월8일~ 10일
6월11일
6월15일~6월19일
6월22일~6월24일
7월6일~7월9일
7월20일 7월24일

김평호 목사

- 열두광주리 기도원원장
- 크리스찬 포커스 편집이사
- 선한목자 부흥사회 대표회장
- 한기총 부흥사회 부회장
- 지저스 타임즈 운영이사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하성북리 350번지

010-8411-0191, 031-535-6975

선한목자부흥사회 대표회장 : 김평호 목사(열두광주리 기도원 원장)

6일 제4회 전국청년부흥대성회, 2만여 청년 참석

6시간 동안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기도, 찬양 통해 거룩한 꿈 키워



▲ 606청년부흥대성회 강사로 초빙된 조용기 목사가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청년들의 뜨거운 기도합성이 6일 잠실 올림픽경기장을 흔들었다. 2만여 명의 청년들은 말씀과 기도, 찬양 안에 자신의 꿈과 비전, 미래를 담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열정과 헌신은 6시간 동안 거룩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케 했다. 올해 4번째 열린 전국청년부흥대성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행 19:2를 주제로 이 땅의 기독 청년들에게 필요한 네가지 영성인 믿음, 성령, 충만, 나눔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4명의 강사가 설교를 전했지만 모든 주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 6시간동안 릴레이 기도와 찬양, 말씀이 이어졌다.

2007년 전국적으로 진행된 '어게인 1907' 이후 대표적 청년 연합행사로 자리 잡은 전국청년부흥대성회는 순복음 성령운동의 진수를 보여주고 한국교회 부흥에 성령의 불을 지켰다. 오프닝을 장식한 D팩스와 리버스루트, 임정희의 특송은 청년들의 큰 호응을 얻었고 마커스 위십, 캠퍼스 위십, 여호수아 찬양팀, 연합찬양팀은 성령 충만한 찬양을 이끌었다. 300명으로 구성된 콰이어는 시종일관 열정적인 찬양을 통해 성회장소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이날 성회는 조용기 목사, 이영훈 목사, 봉 히 목사(싱가포르 시티하베스

트교회), 김은호 목사(오분교회)가 강사로 초빙돼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심어주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근거로 설교한 조용기 목사는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이뤄지는 모습을 바라보라. 꿈을 마음속에 헤아리고 꿈이 이뤄질 것을 믿으라. 항상 적극적으로 창조적인 일술의 고백을 하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믿고 바라보고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한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기 원하신다. 자신의 운명뿐 아니라 사회와 세계의 위대한 재목이 되어서 항상 목표를 세우고 꿈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일할로 시인하고 고백하여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영훈 목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큰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하라"고 말했다. 이어 "꿈을 꾸고 나아가면 성령이 함께해 주시기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며 과거의 상처를 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청년들이 될 것을 강조했다. 설교를 마친 이영훈 목사는 성회에 참석한 장미란 선수를 소개하며 "우리도 거룩한 꿈을 품고 세계를 들어올리는 청년들이 되자"고 기도했다.



▲ 성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있다.

봉 히 목사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에 대해 설교하며 "삶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나님은 부흥을 통해 문화를 변화시키고 사고를 바꾸고 이모든 것에서 삶의 방식을 꾸신다"며 청년사역과 전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은호 목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는 청년들이 되어야 한다"며 기독청년들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번 성회는 전국 청년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참석했다. 대만 타이퐁에서 온 시오전 성도는 "이렇게 크고 성령으로 뜨거운 청년성회는 처음 참석해봤다. 606성회에 오게 된 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영 성도는 "CCC에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요즘에 기도도 안되고 답답한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성회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했다. 이태양 성도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조용기 목사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다"고 전했다.

성회장소 한편에는 중보기도팀의 7시간 릴레이 기도가 진행됐다. 성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진 릴레이 기도회는 성회가 성령 충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운 지원군이였다.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은 40일 모세새벽기도회를 통해 606성회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은혜와 기적의 성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왔다.

순장·재건 연합수련회

10년째 순장·재건 양총회가 연합수련회로 축제의 한마당

2009년도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교단(총회장:유영섭 목사)과 재건교단(총회장:장정진 목사)의 목회자 연합수련회가 6월9일(화)~11일(목) 2박 3일간 경기도 용인소재 순장측 총회수양관에서 열렸다.

9일 오후 5시 개회예배에서 순장측 유영섭 총회장은 북24:32~35월 말씀을 인용"가슴 뜨거운 동행"이라는 제하의 말씀을 통해 '순장측 교단과 재건측 교단의 보다 더 긴밀한 연합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양 교단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적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온 교단으로써 정통적인 칼빈주의 신앙과 신학이 도전받으며 배교의 기세가

드세어 가는 이 시대에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지켜가며 함께 동행하는 교단이 되자고 역설했다.

예장 순장측과 재건측 양 교단은 이미 10년 전부터 격년으로 교단목회자 수련회를 개최해 왔다. 이제 2009년도 목회자 연합수련회 10년째를 맞이하면서 두 교단은 더욱 긴밀한 연합을 도모하여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영역에 까지 연합적인 사업을 통해 교단간의 이해와 친목을 더욱 돈독히 다져가면서 연합의 질을 더욱 높여 가기로 논의되었다.

본지 운영이사 서명범 목사



‘조국이며 안심하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이 여기소서”

나라를 위한 목사·장로 기도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옥수석 목사)는 오는 6월 29일 오후 7시 30분 거제교회에서 부산교계 목사·장로 1천여 명이 참석한 나라를 위한 구국기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필도 목사), 부산성서회(동원부(본부장 최홍준 목사), 크리스찬21C포럼(이사장 장성만 목사), 부산기독교장로총연합회(대표회장 김주권 장로)가 공동주최하는 이번 기도회는 남북한의 점예한 군사적 대치 하겠다. 기도의 능력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회적 문제를 넘어 영적인 문제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2시간가량 진행예정인 이번 기도회는 메시지보다는 기도예 초점을 맞췄다. 총 3부로 진행되는 기도회는 △1부 하나님의 임재 △2부 회개 의 시간 △3부 나라를 위한 기도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주최측인 크리스찬21C포럼의 장성만 이사장은 "지금은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도 할 때"라며 "엘리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예수님의 상담원리
⑦ 상담과 기도

입시공부에 지쳐있는 J양



백석문화대학 조영길 교수
(본지 논설위원)

B여교에서 3학년 담임을 할 때였다. 여탐방학 보충수업이 끝나갈 무렵 J양이 상담을 요청해 왔다. 진학상담

이었다. 얼굴을 보니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모습이다. 상담실로 가서 마주 앉았다. J양은 소파에 앉자마자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그 모습이 너무 안스러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냅킨만 빼서 건네주며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 얼마동안 울다가 속이 좀 풀렸는지 눈물을 닦으며 사정을 말했다. 그 내용을 대충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

자기는 고3이 되어 1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니는 친척의 언니 오빠들은 어디 어디를 갔으니 너는 적어도 이런 대학은 가야 어머니 체면이 선다고 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하라는 것이다. J양의 걱정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학은 자

기는 도저히 갈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다시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그 때 교회 장로로서 그 학생이 교회를 다니는지 다니지 않는지 상관없이 애타는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기도내용이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 J양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J양이 "아멘." 하고 회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를 마친 후 나는 교회 나가거나 물었더니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 몇 번 간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J양은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해지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나에게 말해 주었다.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대목이다. 나는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

기독교적인 이해로 기도는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이다. 칼빈(Calvin)은 기도는 "하나님과 경건한 사람들 사이의 친밀한 만남"이라고 했다. 상담에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도의 의미는 여러 가지이다.

몇 가지 의미를 정리해보면, 1. 기도는 친교와 연합보다는 더 구체화한 것이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주고 받는 의사소통이다. 2. 믿음의 기도는 절망이나 비굴한 두려움에 기초하지 않고 신뢰와 사랑에 기초한다. 3. 기도는 개인적이고, 사랑스러운

인사말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다.

4. 기도는 하나님의 행위로부터 시작한다. 기브론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며, 바로 그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다.

5. 우리의 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려고 노력하는 데서 시작한다. 더더욱 기도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반응에서부터 시작된다.

상담에서 기도는 내담자의 마음에 편안함을 주는 도구이다. 본 회에서는 : 하나님의 말씀은 수다쟁이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혀를 잘 관리하는 사람에게 임하신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겠다. 기도의 능력은 상담과정에서 내담자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아름다운 감동이 시작되는 믿음의 기업"

마지막 가시는 부모님께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저희가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장례

막상 닥치고 보면, 당황스럽고 절차와 금전적으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어느 누구에게 의논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 상조 이행보중보험, 서울보중보험, 삼성해상배상책임보험 가입

◆ 24시간 전국 어느곳에서나 이용 가능합니다.

◆ 회원은 빈소, 접객실이용료, 음식, 장지만 준비하면 됩니다.

◆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행사를 저희가 책임집니다.

20000원 X 120회면 걱정 끝!!!



대표이사 채근성

전국의 목사님들과 기독교성도 여러분의 성원으로 국민일보 선정 기독 "HIT" 대상에 선정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주님안에서 성장하는 성실한 기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 2006년 수도권 각 교회 멘토링 세미나 후원
- 2007년 전국교회 전도세미나 및 전도월처여 1,000대 무료중정
- 2008년 전국교회에 웃음치료 세미나 후원
- 2009년 전도간증왕 초청 무료 간증 후원

※ 강사는 저희 회사에서 일해 부담해 드리니 교회에서 비용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문의: 0321329-3755~8

(주)전국종합기독교상조

www.kdsangjo.co.kr 24시간 콜센터:1577-4415

지저스타임즈 장례선교부 대표 정기남 011-468-6574

임찬미 선교사 CBS 전국복음성가 대상수상

CBS 리바이벌클럽 강사위원회 주최 제20회 전국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지난 5월 15일(금)오후 2시 대전 열방선교센터(대표장 정민철 목사)에서 개최돼 임찬미 선교사가 영예의 대상을 안았다.

2부 CBS 리바이벌클럽 강사위원회 주최 제20회 전국복음성가 경연대회가 막이 올랐으며, 20대에서 70대까지 참가자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열창을 한 가운데, 예선과 본선을 통과 최종 결선에서 대상을 가려졌다. 대회장 정민철 박사, 심사위원장 장창운 박사 등 심사위원들을 맡은 위원들의 점수가 모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입상자가 발표됐다. 인기상 2인, 장려상 3인, 동상 2인, 은상 1인, 금상 2인, 대상 1인

인 저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많은 부흥회를 인도하시는 남편 정바울 목사를 성심을 다해 내조하면서 찬양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땅 끝까지 저를 필요로 하는 곳, 주님께 영광 돌리는 곳이라면 달려가 찬양사역에 힘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임찬미 선교사는 지난해 12월 30일 한국부흥사협의회 총재 피종진 목사(대표회장 정민철 목사)에서 2008 대상 시상식에서 찬양부문대상을 수상했으며, 남편 정바울 목사는 은사부문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대상을 내게 안겨 주셨기에 한국과 세계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직 주님영광만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이날 대회장 정민철 목사(대전 열방선교센터)사회로 1부 예배에 심사위원 신언창 목사가 기도, 심사위원장 장창운 목사가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본지 대표이사)정기남 목사가 축사에 나서, 국가의 경제와 가정의 생활이 어려운 이때 열정을 가지고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참가한 선교사들, 이 모두가 기도하면서 어렵게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서 최선을 다해 경연대회에서 각자의 열정으로 대상이 가려질 것인데 먼저 여러분 모두를 축하하며, 이 대회를 주최하고 있는 대회장 정민철 목사, 장창운 목사 그 외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축하했다. 이어 세계치유협의회 대표회장 정바울 목사 1부 예배를 축도로 마쳤다.

등 11명이 수상을 안았다.

이날 영예의 대상을 안은 임찬미 선교사(광주 축복교회 사모)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많이많이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습니 다. 감사드립니다. 또한 CBS 리바이벌클럽 강사위원회 강사위원장 (열방선교센터)정민철 목사님, 심사위원장 (서울찬양신학교) 장창운 목사님, 심사를 맡아주신 신언창 목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대상을 내게 안겨 주셨기에 한국과 세계선교 사역에 있어서 오직 주님영광만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커서 선교사로 내조자

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상복이 있는 목사요 선교사 부부이다. 임찬



미 선교사는 하나님께 받은 많은 사랑을 찬양을 통해 돌려주는 찬양사역자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이고 감정을 담아 찬양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스런 감동을 전해주는 찬양의 전도자라 하겠다.

남편 정바울 목사는 미국과 중국, 유럽 여러 나라에 초청을 받아 부인 임찬미 선교사와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으로 치유의 은사로 찬양으로 하나님의 각종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선교사부부이다.

본지 02, 3, 20일자 12면에서 밝혔듯이 17세에 소아마비로 인해 양쪽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앓은뱅이가 돼, 지금껏 한번도 걸어 본적 없는 손상용 강도사(52세), 대전시 법동에 살고 있는 그가 35년 만에 일어나 걸었다.

그 외에도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80세 노인이 귀가 열려 가족들의 말을 알아듣는가 하면, 허가 풀려서 말을 한다. 미국 등 외국에서도 각종 환자들이 정바울 목사 내외를 만나 주님의 강권적인 치유의 역사로 눈을 뜨고 허가 풀리고, 앓은뱅이가 일어나고, 죽어가는 암환자가 깨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집회의 특징은 저녁 7시에 예배와 집회가 시작되면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이어진다. 밤을 세워가며 집회를 인도하고 있지만 참석한 성도들이 그 누구도 졸지 않고 은혜를 사모가 있다



는 것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고 찬양으로 영광돌리는 선교사, 말씀의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함께하는 집회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는 것이다. 남편 정바울 목사는 늘 옆에서 흥얼거리는 임찬미 사모의 찬양을 통해 평안을 선물받는다며 늘 감사하다고 한다. 그런 남편의 응원에 힘입어 찬양선교에 힘을 쏟고 있는 임찬미 선교사의 표정은 참으로 빛났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방주축복교회
(영임)방주축복수양관

“축” 임찬미 선교사 2009 cbs 전국복음성가 경연대회 대상수상



담임 정 바울 목사 약력

- 해외 선교사
- 경희대학교 교육학과
- 고려대학교 대학원
- 총회신학대학원
- 총신대학교 목회대학원
- U.SA BET대학교 목회학석사
- 동대학 선교학박사
- 세계영성부흥사 협의회 회장
- 해외 영성회복 부흥사협의회 해외대표회장
- 총회부흥사협의회(웨신) 연수원장
- 세계치유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사)국제밀알선교회협회 총재
- (사)고려학술원 이사
- JTNTV방송 지저스타임즈 부이사장

대표전화 062)941-7337 주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1146-21(2층)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하나님의 뜻 펼쳐나갈 것을 다짐

신임 협회장 엄영수 목사, 협회의 취지와 사진공모전 일정 밝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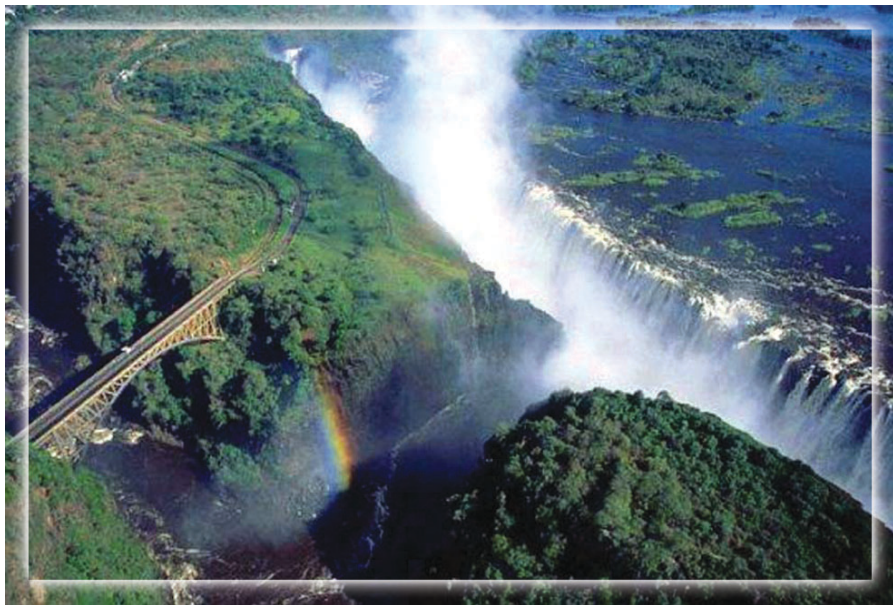
본회는 총회
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가운데 대한
기독사진가협회(한국기독교영상선교회)를
발족하고 재건총회에서 신임 협회장에 엄
영수 목사(안양, 대광고회 담임)를 추대했
다.

본회는 총회
에서 엄영수 목
사를 본회장으
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엄영
수 목사는 이날
자신의 뜻보다
는 하나님의 뜻
과 회원들의 생각
이 우선임을 알고 회
의 결과를 결하여 수용
한다면서, 협회 발전에 노
력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엄 목사는 또 본 협회의 취지에 대
해 문화영상선교에 중점을 두고, 사진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귀한 도구로서 한국기
독사진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며, 활
발한 작품활동을 통해 목회와 선교를 위한
사진영상 자료를 개발, 제공할 것을 약속

하고 사진 봉사를 통해 선교적 영상자료
가 필요한 교회나, 기관 단체에 저렴한 인
건비로 사진작가들을 파송하는 사업안도
구상 중에 있다고 했다. 게다가 포토아카

8월 10일이 된다.
<본회 재건총회는 2009. 4월 20일 안양
대광고회에서 있었다.>



데미 운영을 통해, 인재양성에 힘쓸 것이
며, 본회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대한기독사
진가협회 홈페이지를 방문 선교/봉사 메뉴
에서 촬영의뢰를 신청, 또는 본회에 문의
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본 협회는 이 귀
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회원들을 위
해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말하고, 본 협회
방문을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약속했다. 엄
목사는 이어 급변하는 미디어 영상시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진 한 장이 주는
감동이나 메시지는 때론 설교 보다 더 강
력한 감동과 힘을 느낀다면서 본 협회의
활동이 한국교회의 기독교 문화에 크게 이
바지하기를 소망한다면서 본 협회는 오는
7월 25일까지 "빛이 있는 풍경"을 주제로
사진공모전을 진행한다. 1인 3점 이내 인터
넷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발표 예정일은

협회의 취지
우리 협회는 위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이 이
루어 드리면서 또한 회원님들의 뜻을 펼쳐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기도하면서 회원
님들의 뜻을 이루어 가는 일에 저의 작은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 그동안 교회 안에서 도와시켜 왔던 영상
분야가 빔 프로젝트의 보급과 함께 새로이 개
척되어야 할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 장
의 사진이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끼칠 수 있
습니까? 사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
하고 그것이 선교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
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회원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협회가 되
도록 힘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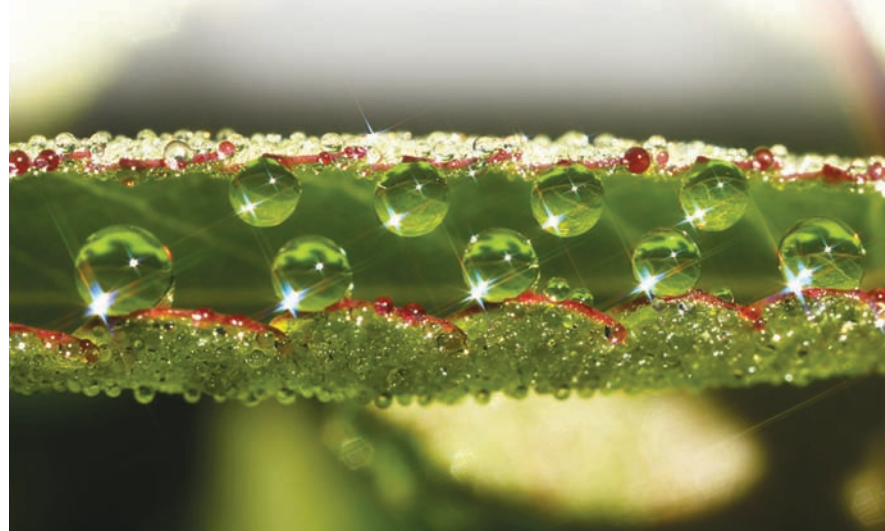
조직이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족공
동체로...이 모임을 통해서 마음에 섬을 얻고, 삶
에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모임, 세상
에서의 상처나 아픔이 치유되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곳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서 그동안 보다 더 많은 오프모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나님이 주신 사진재능으로 이웃들을 섬
기는 사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곳은 찾으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의
경조사 교회의 각종행사 등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봉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준비시켜서 어떤 요청이
있어도 다 감당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
니다.

• 각종 이벤트행사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온라인 공모전, 전시회, 국내외 촬영 대회 등을
실시해서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협회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던 포토 아카데미를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대광고회
에 호남권에서는 한누리교회에 스튜디오 시설
이 갖추어진 아카데미 공간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내외부 강사진을 통한 체계적
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이미 관계
부처에 등록,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게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들



협회장(작은 목동) 엄영수 목사

<http://www.christianphoto.co.kr>
대광고회 <http://www.daekwang.or.kr>
031-384-7408



사진공모전

- 주 최: 대한기독사진가협회 / 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 공모주제: 빛이 있는 풍경
- 출품자격: 제한 없음 (출품료 없음)
- 출품을 위하여 대한기독사진가협회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회원가입을 한 후 작품을 출품해야 함.
- 출 품 수: 1인 3점 이내
- 응모기간: 2009년 6월 15일 ~ 2009년 7월 25일 23시
- 최종발표: 2009년 8월 10일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
- 응모방법: 1) 인터넷 접수만 가능
2) 본회 홈페이지 내의 "공모전" 배너를
클릭한 후 해당 페이지에 접속
- 시상내역: 대상 - 1명: 상금 100만원
: 금상 - 1명: 상금 50만원
: 은상 - 2명: 상금 30만원
: 동상 - 5명: 상금 10만원
: 입선 - 10명: 기념품
- ※ 응모작품수, 작품수준에 따라 시상내역이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제1기 포토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만물을 이 시대 가장 보편화된 카메라
를 통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들여다보며 기독교문화선교 사업에
일익을 담당기 위해 기독교사진가들을 교육 양성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데 앞장 서기위해 포토아카데미를 아
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1. 강좌안내
1) 사진기초반 (12회) 사진작품반 (12회)
2) 포토샵반 (8회)
2. 교육기간
1) 사진 기초반 (매주 화요일)
- 2009년 7월 7일 ~ 9월 22일 저녁 7시30분 ~ 9시30분
2) 사진 작품반 (매주 월요일)
- 2009년 7월 6일 ~ 9월 21일 오전 10시 ~ 12시
3) 포토샵반: 8주 과정 (문의)
3. 장소: 대광고회 교육관 4층 (안양시 관양1동 현대아파트,
관양초등학교 주변)
4. 모집정원: 각반 15명
5. 수강료: 12만원(12주)
6. 문의
- 강좌문의: 아카데미 원장 주승철 (010-8008-5532)
- 장소문의: 대광고회 (<http://www.daekwang.or.kr>)
TEL: 031-384-7408)

